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마르 1,39)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렘브란트, 1647-1649년, 암스텔담 국립 미술관, 네덜란드

[제1독서] 율기 7,1-4.6-7

[화답송] 시편 147(146—147),1나ㄷ-2.3-4.5-6
(◎ 3ㄱ 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짜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2독서] 1코린 9,16-19.22-2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 1,29-39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29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31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증을 들었다.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39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야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성화 해설

병자의 치유와 구마 기적은 하느님 다스림의 시작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렘브란트

바로크 시대에 활동한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 내면성을 강조한 작품을 즐겨 그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위에 몰려든 군중에게 설교하시면서 병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그분은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고 있다. 병자의 치유와 구마 기적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음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복음(福音).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기쁜 소식’과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기쁜 소식’이 일치하나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비법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쁜 소식’인 듯한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를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귀 들린 이들이요,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아픔과 상처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과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하시고자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떠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려면 이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닌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하며,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지친 우리의 마음,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욕심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낮게 하시는 ‘기쁜 소식’의 선포자십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병자들과의 인격적 관계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9차 세계 병자의 날은 2021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거행됩니다. 세계 병자의 날 거행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제가 영적으로 가까이 있음을 밝히며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약속드립니다.

1. 이번 세계 병자의 날 주제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 자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복음 구절에서 영감을 받습니다(마태 23,1-12 참조). 믿음이란 다른 이들의 삶과 필요와는 무관한 공허한 말로 축소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삶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자기 이상화에 빠질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시고자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마태 23,3) 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누구도 위선의 악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우리가 한 분이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보편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악입니다.

형제자매의 곤궁한 처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선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 그 형제자매에게 귀 기울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삼아 그 고통을 짊어지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당부하십니다(루카 10,30-35 참조).

2. 질병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이 힘없는 존재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이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아플 때,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는 불안, 두려움, 때로는 당혹감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우리의 능력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태 6,27 참조).

질병은 삶의 의미에 관한 물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님께 여쭙는 그러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이는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곧바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입니다. 이 힘겨운 추구에서 친구나 친지가 우리를 늘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병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얼굴이 있습니다. 곧, 질병에는 모든 병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경시당하고 배척받는다고 느끼는 이들, 기본권을 무시하는 사회 불의의 희생자들의 얼굴도 있는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22항 참조).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의 현실은 보건 체계의 취약성과 병자들에 대한 지원 부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접근이 연로한 이들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늘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늘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 자원 관리 방법, 책임자 역할을 맡은 이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병자 간호와 지원에 자원을 투자하는 일은, 건강이 으뜸 공동선이라는 원칙과 연결되는 우선 사항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통하여, 의료진, 자원봉사자, 지원 실무자, 사제, 수도자를 비롯하여, 직업의식과 자기희생, 책임감, 이웃 사랑으로 수많은 병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돌보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봉사해 온 모든 사람의 헌신과 관대함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환자들을 우리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이웃으로 여기며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4. 병약한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성덕에 이른 이들의 수천 년에 걸친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병자들과 이루는 이러한 인격적 관계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부터, 병자에게도 치료자에게도 충만한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샘솟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를 거듭 증언하며, 예수님의 치유는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만남 그리고 상호 인격적 관계의 결실**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바로 그 만남과 상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듭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병자들과 이루는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한 사회가 **형제애의 정신으로 가장 힘없고 고통받는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을 때**에 더욱 인간적인 사회가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합시다. 아무도 배척받거나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합시다.**

자비의 어머니이시며 병자의 치유이신 마리아께, 모든 병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고통받는 형제자매에 대한 도움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이를 맡겨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루르드 성모 동굴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전 세계 성모 성지에서 우리 믿음과 희망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형제애로 서로를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모든 이 각자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전문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35?gb=K1200>〉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 아멘.



2021년 Life is VERY Good 행사

A livestream Evening of Prayer

from the Cathedral of St. Thomas More

By Autumn Koo (SPC Sunday School CYO vice principal)

Each year, the Diocese of Arlington welcomes more than 11,000 participants from across the country for the Life is VERY Good event at EagleBank Arena at George Mason University, in preparation for the March for Life. The decision was made that Life is VERY Good 2021 will not take its usual format due to state and local COVID-19 regulations. Instead, they offered a livestream Evening of Prayer from the Cathedral of St. Thomas More on Thursday, January 28.

After consultation with Fr. Lee(John the Apostle) about the event, he graciously offered to celebrate Mass with our students and families before the livestream event. In the past, this event was only open to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the virtual platform provided us with an opportunity to make it available for students and families in all grade levels. Fr. Lee(John the Apostle) was pleased to meet some of our students and families for the first time via Zoom. He delivered a special message about the meaning of life through his homily and engaged students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He reminded us to be witnesses of our faith and to protect God's precious gift of human life from the start of its conception to its end.

Life is VERY Good 2021 livestream opened with beautiful music by Steve Angrisano. He had a humorous personality of getting people to praise and worship God. Despite watching the event at home, I could feel his passion and love for God through his songs. Keynote speaker, Ennie Hickman, shared examples from the Scripture of Christ's love for us and how we can answer His calling by putting our trust in the Lord. He closed out his message by encouraging everyone to be the miracle that the world needs.



The serene cathedral was interrupted by blaring sounds of the fire alarm. I was surprised at how calm the audience was as they looked around to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Not one person got up and headed for the exit. I guess Ennie's message about putting our trust in the Lord really resonated with the audience. The livestream was briefly paused, and they quickly resolved the issue which was caused by the incense. Bishop Burbidge assured everyone that he had nothing to do with the fire alarm even though he knew it would take a lot for him to get people's attention after two dynamic speakers.

There was great laughter from the crowd and although it wasn't his intention, it definitely worked in getting people's attention. He opened his message with how we can find serenity and peace by being present with the Lord. He asked us to fix our gaze on the Lord. **"In him, we are always serene and at peace because we know his victory is ours and that there is no force, no evil greater than his love"**.

Bishop Burbidge asked everyone to pray for those considering abortion that they may know God's love for them and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an abortion would experience God's healing. Bishop Burbidge concluded the Evening of Prayer with Adoration. Although I was not there in person, the visual image of the Eucharist as Bishop Burbidge processed with the monstrance helped me to unite with everyone in spirit through prayer. I hope everyone finds courage to speak the truth, profess our faith, and find strength through His grace to change the world. Even though the event looked very different than in past years, the message stayed the same, Life is VERY Good.

A Prayer for Life

Father and maker of all,
 you adorn all creation
 with splendor and beauty,
 and fashion human lives
 in your image and likeness.
 Awaken in every heart
 reverence for the work of your hands,
 and renew among your people
 a readiness to nurture and sustain
 your precious gift of life.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God forever and ever.
 Amen

<https://www.usccb.org/resources/prayer-life>


1 설 합동 위령 미사 2월 12일(금) 오후 7:30

-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친척,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2월 17일(수) 오전 11시, 오후 7:30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으며, 미사 30분 전에 주님 수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3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1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6,000 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안내영상 보기 : https://youtu.be/w_U8Ddwpc0 

4 2020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1년도 교무금 카드

- 2020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1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납부 액수에 차질이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


•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18일(목) - 3월 31(수)

월요일-토요일(매일) 오전 5:30	• 십자가의 길과 미사
매 주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 예식

• 주님 수난 40일 간의 여정에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수난에 동행하는 **사순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5)



the season of
LENT

평일·주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 주일미사 :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5시

교황님의 **2월 기도 지향** | 보편 지향 : 폭력 피해 여성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

• 주일 미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판정 후에도 2주간**
- 기침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임산부,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온 신자는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장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99도 이상 입장 불가**)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5주간** : 호세 10-14, 묵시 7-8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월 31일 (연중 제4주일)

주일헌금	\$1,251.00
교무금	\$8,10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830.00
감사헌금	\$420.00
온라인 봉헌	\$6,312.00
합계	\$17,91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2월 10일(수) 오전 6:15-6:45 | 2월 13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CBCK 미디어 교리 - 유아영세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2월 7일(주일) 미사 강론**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11일(목) 오후 5:00-6:00
2월 12일(금) 저녁 8:00-9:00
2월 14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토크 콘서트 : 노인사목과 건강
3. 나의 하느님 : 친환경 초를 만드는 윤경중 요한 보스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하는 삶 안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 교구 내 40개 이상의 사목처와 선교 봉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Bishop's Lenten Appeal (BLA) 에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BLA 의 주제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입니다.

BLA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분이 전하는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정성은 주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한 삶의 신성함,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사제 성소를 증진하려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1년 BLA에 대한 기부금 서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Sincerely in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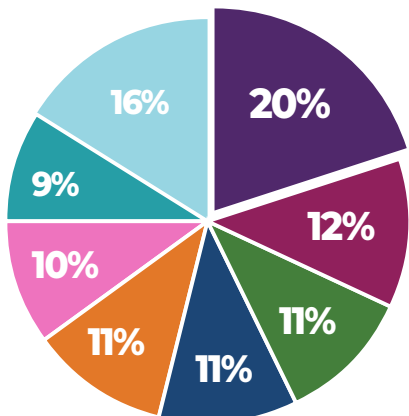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 주교님의 사순시기 사목보조(BLA) 취지

교구 내의 모든 신자들이 사순시기에 절약하고 절제하여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한 신앙 및 영성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을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 2021년 BLA 지원 프로그램 Programs Supported by the BLA



- 20% 성소 및 신학생 지원
- 12% 교구 내의 70개 본당 및 선교 단체 지원
- 11%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소외된 이들 지원
- 11% 청소년 및 청년 지원
- 11% 가톨릭 학교 및 종교 교육 지원
- 10% 다문화 지원 / 교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9% 결혼 및 임산부 지원 (생명 수호)
- 16% 기타



2021년 Bishop's Lenten Appeal (BLA)

Encourage
ONE ANOTHER
BY WORD AND DEED

2021 주교님 사순시기 사목보조비 납입 방법

Ways to Give to the Bishop's Lenten Appeal

1. **A pledge form** 약정 : 10개월 분할(수표, 크레딧/데빗 카드)

2. **Checks** 수표 : 수취인(Payable To) 칸에 BLA 라고 쓴다.

To mail a check, please send to
the Bishop's Lenten Appeal Office.

Bishop's Lenten Appeal
200 N. Glebe Road Suite 811
Arlington, VA 22203

3. **Donate Online** (www.arlingtondiocese.org/bla) :

크레딧 카드로 일시불 및 매달 지불

4. **QR Code** or **Text** 703.260.9800 type **BLA**



5. **Make a gift of stock** 주식 및 증권 :

교구 웹사이트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참조



2021년 성 정 바오로 사순시기 BLA 할당액
\$156,000



교황청, 재의 수요일 관련 공지

재를 얻는 예식... 올해는 '비접촉', 주례사제가 머리 위 부리는 방식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재의 수요일에 거행하는 재를 얻는 예식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경신성사성은 '감염병 시기에 재를 머리에 얻는 예식'이라는 제목의 1월 12일자 공지에서 감염병 시대에 재의 수요일 예식을 거행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직접 손으로 재를 이마에 발라주지 않고 비접촉으로 재를 뿌리도록 했다.

공지에 따르면 사제는 예식을 거행할 때, 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말없이 재에 성수를 뿌린 다음, 참석한 모든 이를 바라보며, 「로마 미사 경본」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라고 한 번만 말한다.

사제는 이어 손을 씻은 다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쓴 채, 사제 앞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재를 얹어 준다. 또는 사제가 신자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재를 집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말없이 뿌려 주도록 했다.


바티칸과 이탈리아에서는 재로 이마에 십자표식을 하지 않고 재를 뿌리는 방식이 하나의 전통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제가 여러 사람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식은 특히 감염병 시기에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가톨릭 신문>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53295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